

# 일본 제조업 침몰하나?

실적 악화로 구조조정 이어져  
한국 기업과의 세계적 경쟁에 사활 걸었다



일본 제조업의 작년도 실적 악화는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그것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유럽 재정 위기, 역사적 엔고 등 하나같이 초대형 악재들이었다. 사진\_연합DB

‘모노즈쿠리(もの造り); 물건 만들기)의 왕국’ 일본의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내로라하는 제조업체들의 2011회계연도(2011. 4~2012. 3) 실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추락할 것으로 보이자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진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대홍수, 역사적 엔고(高),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실적 악화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 일본 최대 신문 요미우리지는 2월5일자 기사에서 일본 제조업의 실적 부진을 두고 ‘충봉괴’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다.

제조업의 악화는 수출 부진과 궤를 함께 하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남겼다. 지난해 일본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였다. 무려 200%가 넘는 국가부채비율은 선진국 가운데 최악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에까지 몰린 일본으로서는 산업의 등뼈인 제조업의 부진이 설상가상의 타격이 되고 있다.

## 소니 실적 최악 수준

일본의 대표적 전자업체 소니의 2012회계연도 실적 전망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TV 사업 부진으로 실적 악화가 계속되면서 2천200억 엔의 손실실이 예상되고 있다. 사상 최악이었던 1994년(2천933억 엔)과 2010년(2천599억 엔)에 이은 역대 3번째 규모다. 삼성전자와의 TV용 LCD 패널 합작 공장 철수 등으로 TV 부문의 손실만 해도 2천3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니는 연결제무세표 결산에서 4년째, TV 사업만으로는 8년 연속 적자다.

2005년 취임 이후 소니를 이끌고 있는 하워드 스트링거 회장은 실적 악화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는 4월1일 바통을 히라이 가즈오(平井一夫·51) 부사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말하자면 불명예 퇴진이다. 스트링거 회장은 7년 동안 전자 부문의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는 2월2일 기자회견에서 “실적 악화는 소니뿐만 아니라 일본 전자업계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지만 패자의 변명으로 비쳤을 따름이다. 히라이 부사장 역시 “비상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힘을 결집해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비단 소니만이 아니라 일본 유수의 전자업체들이 줄줄이 대규모 적자 행진이다. 파나소닉은 역대 최악인 2001년(4천277억 엔)보다도 훨씬 많은 7천억 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TV와 반도체의 부진이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샤프 역시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천900억 엔에 달하고 NEC도 1천억 엔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 게임기업체 닌텐도는 650억 엔 손실실이 예측되고 있다.

## 도요타의 굴욕

일본의 간판 기업 도요타자동차도 내수 부진과 신흥시장

지난해 일본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였다. 여기에 덧붙여 제조업 약화는 수출 부진과 궤를 함께 하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남겼다.



일본의 대표적 전자업체 소니의 2012회계연도 실적 전망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TV 사업 부진으로 실적 악화가 계속되면서 2천200억 엔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EPA, 연합뉴스

침체 등 내외외환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2011회계연도 들어 3분기 말까지의 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1천171억 엔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2.3%나 급감했다. 도요타는 2011 회계연도 전체의 세후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51% 감소한 2천억 엔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닛산자동차의 예상 순이익 2천900억 엔과 혼다자동차의 2천150억 엔에 이어 일본 내에서도 3위로 밀린다는 얘기가. 동일본 대지진과 엔고, 유럽 재정 위기, 태국 대홍수 등은 다른 자동차업체도 모두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요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도요타의 부진은 비중이 높은 일본 국내에서의 생산·영업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요타는 작

년 4~12월 사이에 수출을 포함한 국내 생산 부문에서 3천 64억 엔의 영업 적자를 낸 반면 아시아와 북미 등 해외 생산 부문에서는 4천억 엔 가까운 흑자를 올렸다. 도요타의 국내 영업 적자는 1982년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도요타는 올해 아시아 등 신흥시장을 집중 공략하기로 하고 생산 목표를 2011회계연도의 741만 대보다 100만 대 이상 늘린 858만 대로 잡았다.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과 달리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의 전반적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부활한 미국 자동차업체나 한국 자동차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간판 기업 도요타자동차도 내수 부진과 신흥시장 침체 등 내수외환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의 생산·영업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분석된다. AP\_ 연합뉴스

## 구조조정 칼바람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NEC는 국내외에서 1만 명의 인력을 줄이기로 했고 전자부품업체 TDK는 국내 7개 공장을 폐쇄하고 국내외에서 직원 1만1천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도요타는 엔고 지속으로 국내 사업의 채산성이 떨어지자 후쿠오카(福岡)현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과 일부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 인디애나주로 옮기기로 했다. 후쿠오카공장에서는 현재 하이브리드차 4천200대를 포함해 연간 3만7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도요타는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과 함께 4억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의 28만 대에서 33만 대로 확충할 방침이다.

‘일본의 자존심’ 도요타의 생산기지 이전은 국민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도요타는 이전 규모가 작고 고용

도 그대로 유지하므로 국내 사업이 크게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은 본격적인 해외 이전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기술·상품 경쟁력 상실

일본 제조업의 작년도 실적 악화는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그것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유럽의 재정 위기, 역사적 엔고 등 하나같이 초대형 악재들이었다. 대지진과 태국 홍수는 제품의 생산·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유럽 재정 위기와 엔고는 국내외 수요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상품과 기술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일본은 기술 면에서는 여전히 세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적시에 상품 개발로 연결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게 사태를 꼬이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전시회 'CES 2012'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당시 전시회장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내놓은 50인치대 발광다이오드(OLED) TV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최첨단 제품인 OLED TV는 고화질과 박막, 에너지 절약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TV로 비용과 기술 문제로 대형화가 지금까지 미뤄졌지만 삼성과 LG가 나란히 55인치 OLED TV를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전자업체들은 아직 이런 TV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품 개발에서 뒤진 것이다. 사실 OLED TV는 소니가 2007년 11인치짜리를 세계 최초로 발매했으나 3년 만에 철수하고 말았다. 가격이 너무 비싸 상품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에서 소니 이외의 다른 전자업체도 연구를 계속했으나 상품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브라운관 TV 이후 세계 TV시장을 주도하던 소니 등 일본 전자업체가 이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열세를 부정할 수 없는 신세라고 한탄했다. 2000년대 이후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은 평판 TV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패널에 집중 투자해 기술과 생산 효율을 높이면서 일본 기업들을 앞서기 시작했다.

##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 '사활'

일본 기업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진 전자와 자동차, 반도체 등은 모두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과의 세계 경쟁에서 고전하는 업종들이다. 일본 업체는 한국 기업들이 원화 약세와 정부의 세제 지원,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일본 업체는 세계적인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며 칼을 갈고 있다. 소니의 차기 사장인 히라이 부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애플단지인 TV 사업과 관련, "2년 후 흑자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평판 TV의 기능과 성능을 높이고 해상도와 음질을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TV 사업 강화와 재편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히라이 부사장은 소니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매했다가 철수했던 OLED TV를 다시 개발해 판매하겠다고 밝혀 한

국의 삼성 및 LG와 정면 승부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했다. 그는 "(OLED TV) 수요가 있다면 제품을 내겠다"고 다짐하고 "소비자로부터 품질과 가격, 기능,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내놓으라는 높은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나소닉의 오쓰보 후미오(大坪文雄) 사장도 인터뷰에서 "최근 수년간 한국 기업들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과 LG의 대형 OLED TV 개발에 언급하며 "우리가 OLED TV의 상품화에서 한국 기업에 늦은 이상 성능에서도 저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품질과 성능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쓰보 사장은 "올해부터 에어컨과 냉장고도 북미에서 공격적으로 발매하겠다"고 밝혀 다른 가전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 경쟁에 나설 계획임을 내비쳤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합종연횡을 추진하고 있다. D램 반도체에서 삼성과 하니닉스에 밀려 파산 위기에 놓인 엘피다가 대만 업체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체와 경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조선업체도 내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2위 조선업체인 유니버설조선과 7위 업체인 IHI마린유나이티드는 오는 10월까지 합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조선회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연간 건조량 370만t으로 일본 2위, 세계 7위 조선업체로 부상한다.

일본 기업들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 전체의 해외 생산 비중은 이미 33%에 달하고 있다. 엔고와 높은 인건비, 법인세 등 고비용 구조인 일본에서의 생산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이런 추세라면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3년 후에는 38%로 높아지고 전자업종은 53%까지 올라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시장으로 생산기반을 집중 이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산업 공동화를 막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는 등 여건 개선에 애쓰고 있다. 기업들은 그러나 허구한 날 정쟁(政爭)으로 세월을 허비하며 리더십을 상실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여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종현 도쿄 특파원 kimjh@yna.co.kr